

고려 시대 인삼과 의약서에 대한 기록

Records on Ginseng and Medical Book during the Goryeo Dynasty

이성동*

Sungdong Lee*

초 록

주제어

- 인삼 기록
- 고려시대
- 인삼교역
- 의약서
- 향약구급방

우리나라의 특산품인 고려인삼은 삼국시대 이래 가장 중요한 수출품 중 하나였다. 그러나 고려 시대까지 우리 역사에서 인삼에 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본 고에서는 고려 시대의 인삼에 관한 국제 수교 및 교역 기록과 당시 출판된 것으로 알려진 의약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주변 국가인 발해, 송, 왜, 후진, 원나라와 외교적 예물로 또는 교역품으로 인삼이 활발하게 거래되었다. 주로 고려에서 주변 국가로 인삼이 수출되었지만 발해와 거란으로부터는 인삼을 외교적 예물로 받기도 하였다. 아라비아 상인은 고려의 대표적 국제무역항이었던 벽란항에 와서 인삼을 교역하였다. 몽골 침입 이후 원나라의 인삼 요구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제중입효방』, 『어의촬요방』, 『향약고방』, 『삼화자향약방』, 『향약혜민경험방』, 『향약구급방』, 『비예백요방』 등 여러 의약서가 출판되었다. 『향약구급방』은 조선시대에 중간된 것이 전해지고 있으나 나머지 책들의 원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최근 후대의 여러 의약서에 인용된 것들을 연구하여 그 일부가 복원되기도 하였다.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의약서에는 인삼을 포함한 처방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주로 평민을 위한 『향약구급방』에는 인삼 처방이 한 건도 수재(收載) 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인삼이 매우 귀하고 고가이어서 평민이 접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College of Health Science,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Korea University

E-mail: lsdojm@hanmail.net

ABSTRACT

Keywords

- Record on ginseng
- Goryeo Dynasty
- Ginseng trade
- Medicinal books
- *Hyangyak Gugeupbang*

Korean ginseng, a special product of Korea,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exports since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However, not many records were kept about ginseng in Korea until the Goryeo Dynasty. This paper summarizes the records relating to international diplomatic relations and trade of ginseng in the Goryeo Dynasty and the medicinal books known to have been published at the time.

During the Goryeo Dynasty, ginseng was actively transported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Bohai, Song, Wa, Later Jin, and Yuan as a diplomatic gift or as a trade item. Ginseng was mainly exported from Goryeo to these countries, but it was also received as a diplomatic gift from Bohai and Khitan. Arabian merchants came to Byeokran Port, 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trading port of Goryeo, and traded ginseng. After the Mongol invasion, the demand for ginseng in the Yuan Dynasty was excessive, which became a big social problem.

During the Goryeo Dynasty, several medicinal books were published, including *Jejungiphyobang*, *Eouuichwalyobang*, *Hyangyakgobang*, *Samhwajahyangyabang*, *Hyangyak Hyemin Gyeongheombang*, *Hyangyak Gugeupbang*, and *Biyebaekyobang*. *Hyangyak Gugeupbang*, which was reprin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has been handed down to the present time, although this has not been the case for the originals of the remaining books. Recently, some of the latter books have been restored through the study of the references in various medicinal books of later generations. While the medicinal books used in the royal court showed that a high proportion of the prescriptions containing ginseng, not a single prescription for ginseng has been found in the *Hyangyak Gugeupbang*, which was mainly used for commoners. This is thought to be because ginseng was very rare and expensive at the time, so it was difficult for commoners to access it.

I. 머리말

인삼은 한국, 중국 등을 위시하여 동양에서 최고의 영

약 및 약재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특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본초학서인 『신농본초경』은 기원전 1세기 무렵 중국의 전한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이 책에서는 인

삼을 상약으로 분류하였고 그 약효를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제시하였다.¹⁾

- 주보오장(主補五臟) 주로 오장을 보호하되
- 안정신(安精神) 정신을 안정시키고
- 안혼백(安魂魄) 정신과 육체를 안정시키고
- 지경계(止驚悸) 심장의 부정맥 등을 정상화하고
- 제사기(除邪氣)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 명목(明目) 눈을 밝게 하고
- 개심익지(開心益智) 마음을 편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고
- 구복경신연년(久服輕身延年) 장기간 복용하면 심신이 경쾌하며 장수한다.

인삼은 이미 삼국시대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었고, 고려 시대에는 그 사용이 훨씬 많고 보편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특히 고려시대의 인삼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II. 고려 시대 인삼 교역에 대한 기록

고려 시대 인삼은 주변 여러 나라와의 외교적 예물로 또는 교역품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로 고려에서 외국으로 인삼을 수출하였으나 발해나 거란으로부터 인삼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멀리 아라비아의 상인과의 교역을 한 기록이 있다. 벽란도는 고려 시대에 국제무역항의 역할을 하였다. 개경에서 약 20리쯤 떨어져 있는 예성강은 강물이 비교적 깊어서 강 입구에서 8km 되는 벽란도까지 큰 배가 올라갈 수 있었으므로 벽란도는 큰 무역항이었다. 이 당시 항구에는 송, 왜, 사



그림 1. 고려 시대 무역 및 교통로
(https://onui.com/QA_detail?qr=734622)

라센 (Saracen) 등의 상인들이 와서 무역하였다.²⁾ 교역품 중 수출품은 금, 은, 동, 인삼, 복령(茯苓), 송자(烝), 표피 등이고, 수입품은 능견(綾絹), 금라(錦羅), 자기, 금박, 약재, 차, 향료 등이었다.[그림 1]

고려 시대 인삼 관련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

○ 제1대 태조 시대

- * 태조 8년(925), 중국 후당(後唐) 장종(莊宗) 때에 발해(渤海) 애왕(哀王)이 인삼을 보내왔다.
- * 태조 9년(926)에 다시 발해 애왕이 인삼을 보내왔다.
- * 태조 10년(927)에는 태조가 발해에 인삼을 선물하였다. 또 같은 해에 거란(契丹)의 부족장이 인삼을 공헌(供獻)하였다.
- * 태조 12년(929)에 광평시랑(廣評侍郎) 장분(張芬) 등 53명이 당나라에 갈 때 인삼을 가지고 갔다.

²⁾ 남도영. 『국사정설』 (동아출판사, 1964) p.219.

³⁾ 한국인삼사편찬위원회. 『한국인삼사』 (삼화인쇄주식회사, 1980) p.1068; 『한국인삼사 I』 (동일문화사, 2002) p.18, p.818-820.

¹⁾ 한국인삼사편찬위원회. 『한국인삼사 I』 (동일문화사, 2002) p.28.

* 태조 20년(937)에는 문화 수준이 낮은 왜(倭)에도 문화정책으로 수교하기 위 해 인삼을 보냈다.

○ 제2대 혜종 시대

* 혜종 원년(944)에 광평시랑 한현규, 예빈향(禮賓鄉) 김렴 등으로 하여금 인삼 50근을 후진(後晉)에 보내 교역을 하였고, 이후에도 많은 인삼을 교역하였다.⁴⁾

○ 제4대 광종 시대

* 광종 12년(961)에 송(宋)과 국교가 정상화 되고 무역이 이루어졌다.
* 광종 19년(968) 송의 태조 때 상약(尙藥) 유한(劉翰)과 도사(道士) 마지(馬志) 외 7명을 초빙하여 개보본초(開寶本草)를 간행하였다.⁵⁾

○ 제8대 현종 시대

* 현종 원년(1009)에는 고려의 국제무역항인 예성강의 벽란항(碧瀾港)에서 아라비아 상인이 자국의 토산품을 바치고 고려인삼을 무역해 갔다(『고려사』).
* 현종 10년(1019)에 송에 고려삼을 선물하였다(『송사(宋史)』, 『고려사』 36, 89, 32).
* 현종 21년(1030)에 송 인종(仁宗)에게 고려삼을 선물하였다(사신 일행이 296명이었다(『송사』)).

○ 제10대 정종 시대

* 정종 2년(1036)에 왕이 중추원에 명하여 민간으로부터 인삼 1,000근을 수집하고 또 500근을 더 수집하게 함에 백성이 반대하였고, 문하성(門下省)도 이같이 주청하였다(『고려사』).

○ 제11대 문종 시대

* 문종 24년(1070)에 김제(金悌)를 시켜 인삼 1,000근을 송나라에 보냈다.

* 문종 34년(1080) 7월 송 신종(神宗)에게 인삼 1,000근, 다음 해 또 1,000근을 물물교환으로 교역하였다(『고려사』).

* 1086~1094년 경에 송나라의 원우중(元祐中)과 소식(蘇軾)이 해주(惠州) 나부산(羅浮山)에 약포(藥圃)를 만들어 인삼을 키웠다고 한다.

○ 제17대 인종(仁宗) 시대

* 인종 원년(1123)에 산양삼(장뇌삼)이 번식되어 인공 재배가 시도되었다.

* 인종 2년(1124)에는 송나라 사신이 기록한 고려도경(高麗圖經)이 나왔다. 고려도경에 의하면, 당시 고려에서는 생삼을 찌 익혀서 말린 것을 숙삼(熟蔘)이라 하였으니 고려홍삼이 이 당시에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인종 10년(1132)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郎) 유청(惟淸), 심기(沈起) 등을 시켜 인삼 500근을 비롯하여 금 100량, 은 1,000량, 능라 100필을 송나라에 예물로 보냈다(송사).

○ 제23대 고종(高宗) 시대

* 고종 18년(1231) 송나라 상인이 물소 4마리를 바치니 최우(崔瑀)가 인삼 50근과 폭이 넓은 삼베 300필을 주었다. 강화도에서도 이 시기부터 산양삼 재배 관련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강화농업기술센터).

○ 제25대 충렬왕 시대

* 충렬왕 3년(1277), 동(同) 5년, 동 23년, 동 25년, 동 27년에 원(元) 나라에 인삼을 선물하였다. 이 같은 교역을 함에 당시 고려 여인으로 원나라 왕족이 되었던 충렬왕비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지나친 양의 인삼을 무역함으로써 민간의 원성이 높았다(고려사). 따라서 충렬왕 3년 4월에 장군 장순용(張舜龍)을 원나라 세조에게 파견하여 인삼 채굴하는 일

⁴⁾ 신서원 편집부. 『북역 고려사, 제2권』 (도서출판 신서원, 1997) p.124.

⁵⁾ 본 『개보본초』는 인삼의 약용개념을 알려주었으며, 이후에 간행된 송나라의 관찬 본초서도 인삼에 약용작용이 있다는 개념을 알려주었다.

을 면하게 해달라고 청하였고, 같은 해 7월에도 원나라 세조에게 상서하여 공삼(貢蔘)을 면하게 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 제31대 공민왕 시대

* 공민왕 7년(1358) 12월 인삼을 원나라의 화약 원료와 교역하였다.

○ 제32대 우왕 시대

* 우왕 2년(1376)에는 나홍유를 일본에 파견하면서 인삼 20근을 보냈고, 다음 우왕 3년(1377) 9월에는 대사성(大司成) 정몽주(鄭夢周)를 일본 국정을 조사할 겸 왜구의 제압을 청하기 위해 일본에 파견할 때 인삼을 보냈다.

III. 고려 시대의 의약서(醫藥書)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의약서들이 발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안타깝게도 그 실물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다른 문헌의 기록으로 몇몇 의약서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과 일부 내용이 전해질 뿐이다.

예를 들면, 고려 시대(성종 3년, 984년)에 일본에서 간행된 『의심방』(醫心方, 丹波康賴 편찬)에 『백제신집방』(百濟新集方)과 『신라법사방』(新羅法師方)에서 인용한 글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두 서적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유추되나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그림 2]

삼국시대의 고전 의약 문헌이 거의 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고려 시대 출판된 의약문헌의 실물 역시 전해지지 않고 있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⁹⁾ 고려시대에 『제중입효방』(濟衆立效方, 1167년, 김영석), 『어의촬요방』(御醫撮要方, 1226년), 『향약고방』(鄉藥古方), 『진맥도결』(診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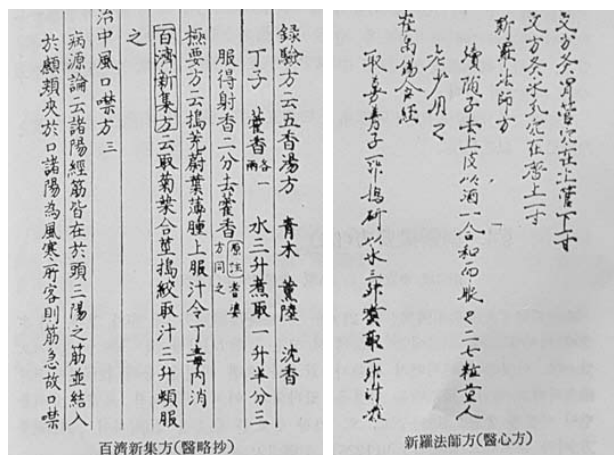


그림 2. 『백제신집방』(의약초), 『신라법사방』(의심방)

圖訣, 1389년, 정도전), 『동인경험방』(東人經驗方), 『삼화자향약방』(三和子鄉藥方), 『비에백요방』(備豫百要方), 『향약혜민경험방』(鄉藥惠民經驗方) 등이 있었다고 하나 실물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조선 시대에 편찬된 의약서에서 이들 서적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최근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의방유취』(醫方類聚) 등에 인용된 원문의 내용으로부터 『어의촬요방』, 『삼화자향약방』, 『비에백요방』 등 수종 의약서가 복원되었다. 한편, 고려시대 출판된 의서로는 『향약구급방』이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으나 이는 고려 시대의 원본이 아닌 조선조 태종 17년(1417년)에 재간한 것으로 상, 중, 하 3권(저자 미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시대에 출판된 것으로 알려진 의약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중입효방』(濟衆立效方)(전해지지 않음)

고려 제18대 의종(毅宗) 21년(1167) 김영석(金永錫)이 찬하였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고려 시대의 의서 중 가장 오래된 문헌이나 원래의 책이 전해지지 않으므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진면목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제중입효방』의 역사적 실체성은 두가지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첫째는 고려의 문신이었던 김영석 묘지명(墓誌銘)에 신라의 의서를 정리하여 읽기에 편리하

⁹⁾ 장일무. 『한국인삼산업사』 (정관장문고, 2018) p.112.

도록 만들어 ‘제중입효방’이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둘째로 『향약집성방』(鄕藥濟生方)에 『제중입효방』에서 인용한 한가지 처방이 기록되어 있다.⁷⁾

이 등⁸⁾은 교효산(交效散)을 중심으로 『제중입효방』에 관한 연구를 하여 새로운 사실들을 밝혔다. 『향약구급방』에도 『제중입효방』의 처방이 기재되어 있고, 『제중입효방』의 처방이 『의방유취』(醫方類聚)에서 『비예백요방』(備預百要方)을 인용한 부분에 수록되어 있음도 알려졌다. 그리하여 이(李) 등은 『제중입효방』의 저술 배경, 인용된 문헌, 내용, 수록된 처방이 후대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탐색과 연구를 하였다. 그리하여 『제중입효방』의 처방은 『향약구급방』,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의림촬요』, 『구급단방』에서 인용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중 조선 후기의 문헌인 『구급단방』의 ‘교효산’은 『의림촬요』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이때는 이미 『제중입효방』이나 『비예백요방』은 물론 『향약집성방』이나 『의방유취』조차도 구해 보기 어려운 때였으므로 『의림촬요』는 17세기 이후로 한국 고유 의서의 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으며 좋은 예가 바로 『구급단방』이다. 약 처방이 오랜 세월 지속하기 위해서는 손쉽게 구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효과가 좋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효산은 대중에게 애용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승정원일기』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된다.

『제중입효방』의 저자 김영석은 고려 의종 대인 1150년 전후 경 서적을 관장했던 비서성과 왕실문고 격인 보문각의 관리를 겸임했었고 또 외교관으로 중국에 왕래했던 지식인이었다. 그런데 말년 13년간을 자신의 풍비(風痺)을 다스리기 위해 요양생활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유로 『제중입효방』을 1154년부터 1166년 사이에 집필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⁷⁾ 이성우, 『한국식경대전』 (향문사, 1981) p.454.

⁸⁾ 이덕호, 김홍균, 안상우, 『濟衆立效方』에 관한 의과학적 고찰 - 交效散을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1 (한국의사학회, 2008) p.34-39.

2. 어의촬요방(御醫撮要方)(전해지지 않음)

고려 제23대 고종(高宗) 13년(1226)에 최중준(崔宗峻) 봉선(奉宣)이 찬하였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⁹⁾ 21권에 『신집어의촬요방』(新集御醫撮要方)의 서문이 있다고 한다.¹⁰⁾ 『동국이상국집』이 최중준의 『어의촬요방』보다 15년 후에 간행되었으므로 『신집어의촬요방』은 『어의촬요방』 이후의 새로운 처방들이 추가되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라 하겠다.

『동국이상국집』의 서문에 의하면 고려 조정에는 다방(茶房)에서 모은 『약방』(藥方)이란 책 일부가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간략하면서 신통한 효과가 있으나 오랜 세월로 책이 탈루 돼 없어지려 하니 최중준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 고종의 허락을 받아 이 책을 2권으로 나누고, 또 중요한 약방(藥方)을 첨부하여 ‘어의촬요방’이라 명명하고 고종 13년(1226)에 평양에서 간행하였다고 한다.¹¹⁾

이 책은 조선 초기의 『향약집성방』 본문 속에 12 방문(方文)이 인용되어 있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의 원본을 『동국이상국집』에서는 ‘약방’(藥方)이라 하였고,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에서는 ‘의방’(醫方)이라고 하였다.

안상우 등¹²⁾은 『어의촬요』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에서 저자인 최중준은 고려 고종 때 추밀원에 재직하면서 당시 궁중에 전해오는 의방을 수집하고 재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당대의 문장가인 이규보도 편찬에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또 『의방유취』의 범례에 근거하여 유취 내에서 『어의촬요』 128방을 채집하고 『향약집성방』에서 12방 및 분문은역이해방(分門

⁹⁾ 고려의 문신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시문집. 이규보의 아들 이합이 고종 28년(1241) 8월에 전집 41권, 동년 12월에 후집 12권을 편집, 간행하였고, 1251년에 왕명으로 이규보의 손자 이익배가 교정 증보하여 개간하였다고 한다.

¹⁰⁾ 안상우, 최환수, 『어의촬요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0) p.42.

¹¹⁾ 이성우, 『한국식경대전』 (향문사, 1981) p.454.

¹²⁾ 안상우, 최환수, 『어의촬요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0) p.42.

瘟疫易解方, 유행성열병 간이치료법) 1 조문 등을 채록하여 취합정리 한 결과 총 132조의 방문을 복원하였다. 이 132조의 처방 중 삼(蔘) 자가 들어있는 것은 삼향탕(蔘香湯), 인삼전(人蔘煎), 인삼환(人蔘丸), 삼령탕(蔘苓湯) 인삼탕(人蔘湯)이다.

『어의촬요』는 고려 왕조의 누대 경험방으로 중국 의서와도 대조를 통해 궁중의약의 면모를 알 수 있어서 의사학적 가치가 크다. 위에서 언급된 수집 복원된 처방 중 3분의 2 정도 처방이 중국 의서와 중복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어의촬요』의 처방들이 주로 고려왕실 어약(御藥) 기관인 다방에서 전래된 고유 전통처방이거나 또는 독자적인 경험이 가미된 특색이 있음을 말해 준다.

3. 『향약고방』(鄉藥古方)(전해지지 않음)

찬자가 미상인 『향약고방』은 『향약집성방』의 본문 속에 4개의 처방이 인용되어 있다. 아마도 신라 또는 고려 시대부터 전해오는 향약¹³⁾에 의한 민간치료법일 것이다.

앞의 『어의촬요』는 왕실용인데 비하여 『향약고방』은 민간약방으로 이 양자에 의해서 고려 전기부터 우리나라 고유치료법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¹⁴⁾

4. 『향약혜민경험방』(鄉約惠民經驗方)(전해지지 않음)

이 책은 송대(宋代)에 화제혜민(和劑惠民)의 주지(主旨)에 의하여 편찬된 『태평혜민화제국방』(太平惠民和劑局方)을 본받아 고려혜민국(高麗惠民局)에서 향약으로 편찬한 것으로 짐작되며 제31대 공민왕 대(1352~1374)의 것으로 보인다.

『향약집성방』 본문 속에 본 『향약혜민경험방』이 군데 군데 인용되어 있다. 또 『태조실록』 권3에 의하면 김희선(金希善)이 태조 2년(1393)에 각 도에 의학교수 1인씩을 파견하여 양반자제를 선정하고 『향약혜민경험방』을 가

르쳤다고 한다.¹⁵⁾

5. 『삼화자향약방』(三和子鄉藥方)(전해지지 않음)

『삼화자향약방』이 『향약집성방』¹⁶⁾, 『향약간이방』¹⁷⁾, 『향약제생집성방』¹⁸⁾ 등의 최초 원본에 해당한다는 것이 권근의 『향약제생집성방』 서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책은 『향약집성방』에서 140여 조(條)가 인용되었다.

김진희 등¹⁹⁾의 『삼화자향약방』의 복원 연구에 의하면, 본 약방은 고려 후기에 삼화자가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의서를 바탕으로 『향약간이방』이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또 『향약간이방』은 『향약제생집성방』의 저본(底本)이 되고, 이것이 다시 『향약집성방』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삼화자향약방』은 고려말~조선초 향약 의서들의 저본이 된다고 하겠다.

『삼화자향약방』의 유문(遺文)이 발견된 서적은 『향약집성방』, 『의보』, 『의방합편』인데, 이 중 『의보』의 유문은 1조문 3처방이었는데 모두 『향약집성방』의 유문과 중복된다. 1개의 조문 중 우방(又方)이 있는 경우에 각 처방수를 달리 센 결과 복원된 『삼화자향약방』의 처방수는 총 246개였다.

『삼화자향약방』은 『향약집성방』의 약 300여 종 인용 문헌 중 19번째로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는 『삼화자향약방』을 당시 가장 가치 있게 평가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당시에 『삼화자향약방』이 성행하였고 판본 상태가 좋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향약구급방』의 인용횟수가 『삼화자향약방』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것은 그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판본 상태가 좋지 않아 널리 유통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¹⁵⁾ 이성우, 『한국식경대전』 (향문사, 1981) p.458.

¹⁶⁾ 세종 15년(1433년), 유효통·노중례·박윤덕 찬.

¹⁷⁾ 고려말경, 서찬·권중화 찬.

¹⁸⁾ 조선 정종 원년(1399년), 권중화·김희선·조준·김사형 등 찬.

¹⁹⁾ 김진희, 안상우, 「삼화자향약방의 복원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구원 논문집』 15(3)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p.8-10.

¹³⁾ 당약(唐藥)에 대하여 우리나라 산의 약재를 지칭.

¹⁴⁾ 이성우, 『한국식경대전』 (향문사, 1981) p.455.

6.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

1) 소장(所藏) 및 서지(書誌)

고려 고종 때 몽고의 침입 시 강화도로 임시 천도하여 당시 대장도감²⁰⁾에서 간행(1236~1251)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의학서적 중 가장 오래된 저자 미상의 책이다. 대장도감에서는 16년 동안에 팔만대장경과 의서(醫書)인 『향약구급방』을 판각하였다. 현재 대장도감의 설치 위치나 판각지의 위치는 대강의 범위는 알려져 있으나 아직 정확히 확정되어 있지 않고 있어 필자도 책임감을 느낀다.

고려시대 간행된 『향약구급방』 초판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지만 조선조 태종 때의 중간본(重刊本)이 일본 궁내성 도서관(圖書寮)에 소장되어 있다. 이는 태종 17년(1417) 경상도 의흥에서 간행된 것이다. 별도의 중간본(重刊本)은 세종 9년(1427) 충청도에서 간행되었으나 멸실 되었다고 전해진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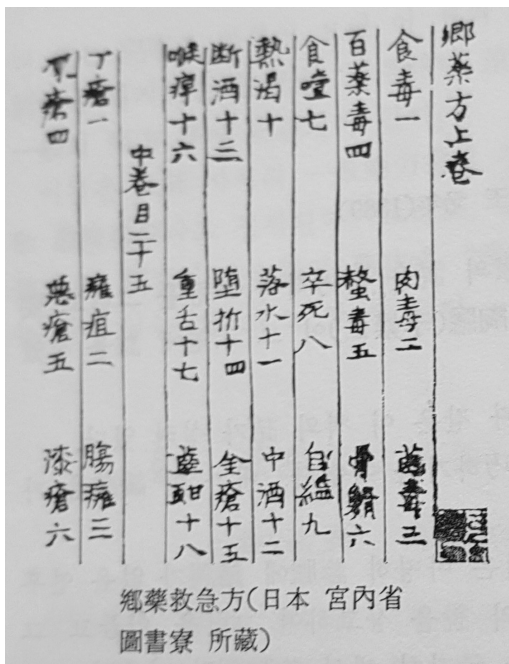


그림 3. 『향약구급방』(일본궁내성 도서관 소장)

2) 간행 경위와 그 가치

태종대의 중간본 발문에 의하면, “향약구급방은 그 효능이 신험(神驗)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치병에 커다란 이익을 준다, 여기에 실려 있는 여러 약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복약법은 모두 경험한 것이다. 도시에는 의사가 있으나 벽지에는 의사가 없으므로 급한 질환 시에는 이 방법대로 하면 된다. 옛날 대장도감에서 이 책을 간행했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판이 낡아 책을 보기 어려워져 의흥에서 다시 간행한다”라고 하였다.

이 책이 고유 의방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권말에 부가된 「방중향약목초부」(方中鄉藥目草部)는 당시의 고유 본초학을 전해주고, 여기에 기입된 목초향명(木草鄉名) 또한 매우 중요한 국어학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한다.²²⁾

3) 내용

이경록²³⁾은 저서 『고려 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에서, 향약론을 전개하여 『향약구급방』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였다. 고려에서 향약이라는 단어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향약구급방』 서명에서 처음 나타난다고 하였다. 향약은 중국의 약인 당약(唐藥)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우리나라 토종 약을 표현한 것이다.

『향약구급방』은 다음의 목차대로 배열되어 있고, 그 다음은 「방중향약목초부」 그리고 발문과 간기의 순위대로 기록되어 있다.

○ 『향약구급방』목차

상권: 식독, 육독, 균독, 백약독, 석독, 골경, 식열, 줄사, 자일, 열갈, 낙수, 중주, 단주, 타절, 금창, 후비, 중설, 치감.

²⁰⁾ 고려 고종 때 대장경 판각을 위하여 설치한 관아.

²¹⁾ 이성우, 『한국식경대전』(향문사, 1981) p.456.

²²⁾ 이성우, 『한국식경대전』(향문사, 1981) p.456.

²³⁾ 이경록, 『고려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혜안, 2010) p.283-290, p.301-304.

중권: 정창, 응저, 장옹, 동창, 약창, 칠창, 탕화창, 단독은진, 대지창, 표저, 부골저, 선개와창, 전축목죽침자, 치루장풍, 심장통, 냉열리, 대소변불통, 입질, 소갈, 소변하혈, 음퇴음창, 비늑, 안병, 이병, 구순병.

하권: 부인잡방, 소아잡방, 소아오탄제물, 수중, 중풍, 전광, 학질(癩疾), 두통, 잡방, 복약법, 약성상반, 고전록험방, 수합법.

○ 방중향약목초부

○ 향약구급방 발문(跋文) 및 간기(刊記)

『향약구급방』 본문은 55목(目)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권 잡방까지 52목에서 처방을 수록하고 있다. 초간본에는 서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남아 있지 않다. 상권은 일상의 구급상황, 중권은 창저와 내상 등 주요 질병, 하권은 전문과와 기타 질병 등으로 구분되었다. 고려 원종 5년(1264년) 기록에, 고려에서는 30년 동안 몽고와의 전쟁으로 기근, 전염병에 계속 시달렸다고 하므로, 고종 대 중반부터는 의료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을 것이고, 이즈음에 필요에 의해 『향약구급방』이 출간되었다.²⁴⁾

4) 방중향약목초부(方中鄉藥木草部)

『향약구급방』 권말에는 당시의 향약 180종의 약재가 실려 있다. 약재들은 향약명이 병기되어 향약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할뿐더러 약성과 채취법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중향약목초부」는 책의 차례에 나오지 않는 데다 그 설명도 『향약구급방』의 본문과 일치하지 않으며, 성상(오미, 사기, 유·무독) 및 채취법, 약용부, 조제법 등이 간단히 설명되어 있다. 식품과 관계가 있는 것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²⁵⁾

창포, 국화, 인삼, 우슬, 결명자, 당귀, 구맥, 백합, 애엽, 토과, 부평, 수조, 길경, 작맥, 송, 오가피, 구기, 율, 천초, 대조, 호도, 적소두, 소맥, 대맥, 만청자, 동과, 박하, 대신, 구(부추), 동계자, 파, 산조, 석결명, 우황, 응담 등

(예) 창포(菖蒲) : 속운(俗云) - 송의마(松衣竹)(소리마), 미신(味辛), 온(溫), 5월 5일-12월 채근(採根), 음건(陰乾) 등

인삼(人蔘) : 미감(味甘), 미한온(微寒溫), 무독(無毒), 2·4·8월 채근(採根), 이죽도거토(以竹刀去土), 일건(日乾), 무령견풍(無令見風).

『향약구급방』에는 549 처방에 754종의 약재가 사용되었다. 1 처방 당 평균 1.37 종의 약재가 사용된 셈이다. 심지어 약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처방도 23개나 된다. 『향약구급방』에서는 1~2종 정도의 적은 약재로 질병을 치료하며, 대다수의 처방은 약재 1종만을 사용하는 단방(單方)이다. 구급방 목차 중 상권에 속하는 구급방일 수록 단방이 많다.

『향약구급방』과 『신집어의촬요방』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약물과 처방 수를 비교하여 보면, 『향약구급방』의 경우, 1. 식초(27), 2. 꿀(22), 3. 소금(21), 4. 당귀(15), 5. 쑥(15), 6. 마늘, 7. 생지황(12), 8. 기름(12), 9. 감초(11), 10. 남칠(藍漆)이다. 『신집어의촬요방』에서는 1. 꿀(53), 2. 감초(42), 3. 인삼(30), 4. 건강(27), 5. 육계(肉桂)(23), 6. 당귀(22), 7. 복령(19), 8. 사향(17), 9. 부자(15), 10. 천궁(15)으로 나타났다.²⁶⁾

『신집어의촬요방』에서 처방명에 “삼”자가 들어간 것은 삼향탕, 인삼전, 인삼환, 삼령탕, 인삼탕으로 총 132개 처방 중 5개에 불과하나, 실제 인삼이 들어간 처방은 30개에 달한다. 인삼이 3번째로 자주 처방된 약재로 4개

²⁴⁾ 이경록, 『고려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 (혜안, 2010) p.283-290, p.301-304.

²⁵⁾ 이성우, 『한국식경대전』 (향문사, 1981) p.457.

²⁶⁾ 이경록, 『고려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 (혜안, 2010) p.283-290, p.301-304.

처방당 1번꼴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향약구급방』에서는 전체를 통틀어 인삼이 단 한 번도 처방되지 않는다. 같은 무렵에 출간된 두 의약서에서 사용 약재가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이것은 『향약구급방』의 처방으로 치료 받는 일반 백성들은 당시 매우 고가였을 인삼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며 약재의 활용 면에서 당시 신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²⁷⁾

한편 『향약구급방』의 전반적인 처방에서 주목할 점은 살생하여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⁸⁾ 즉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 만드는 약재, 예컨대 오골계, 지렁이, 백어(白魚), 자라 등을 사용하는 처방을 소개하기는 하였지만, 그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았다. 불교국가인 고려 사회에서 살생하지 않는 계율이 사람을 구하는 의료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 『향약구급방』은 후에 이루어진 『향약집성방』과 비교해 보면, 소위 변증론치(辨證病症論治)를 하지 않고 단순한 증상과 처방을 모은 처방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향약구급방』은 전래의 의서들에서 인용한 증상 대비 처방집으로 체계적인 이론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7. 비예백요방(備預百要方)(전해지지 않음)

『의방유취』 및 많은 향약서의 인용서로서 오랫동안 중국 의서로 알려져 왔던 『비예백요방』은 안²⁹⁾ 등에 의해 사실은 고려의 의서(1230-1240년 경 추정, 호부상서 金 兪³⁰⁾임이 밝혀졌고, 이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복원

되었다³¹⁾. 복원된 내용은 총론편과 처방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론에는 병인(病因), 복용법과 금기, 수합법(修合法, 약 만드는 방법) 등을 다룬 4편의 논설이, 처방편은 약 1250여 개의 조문을 포함하며 이는 『향약구급방』의 두 배가 넘는 방대한 양이다. 의서에 나타난 의학지식의 전승 경위를 유형화시켜 보면, 『삼화자향약방』, 『비예백요방』과 『향약구급방』의 인용의 선·후관계에 대하여 『삼화자향약방』과 『향약구급방』을 『비예백요방』이 통합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며³²⁾, 기존의 『비예백요방』을 『향약구급방』과 『삼화자향약방』이 인용했다는 설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비예백요방』은 1~3개 약재로 구성된 단미(單味) 위주의 처방과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약재를 쓸 것을 강조하고 있어 앞에서 언급한 다른 민간 의약서들(『어의촬요방』 제외)과의 유사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과 논지는 여말선초의 향약서에 영향을 주었고 조선초의 단방의 우수성과 의도성을 중시하는 향약정신으로 발전하게 된다.

IV. 맺음말

인삼은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품으로 중국, 일본은 물론 멀리 아라비아까지 교역이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에도 주변국들과 인삼 교역이 활발하였는데 특히 외교적 예물로도 많이 활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주변국으로 예물로 보내어졌으나 발해나 거란과 같은 주변국으로부터 예물로 받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동북아에서 인삼이 매우 중요한 교역품이었음을 반영한다. 고려 후기 원나라로부터 무리한 인삼 요구를 받게 되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 많은 의약서가 발간되었으나 『향약구급

²⁷⁾ 이경록, 『고려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 (혜안, 2010) p. 283-290, p. 301-304.

²⁸⁾ 강화혈구연구회, 『고려시대 생활사』 (디자인센터 산, 2017) p. 64-65.

²⁹⁾ 안상우, 「고려의서 『비예백요방』의 고증」, 『서지학연구』 22 (2001) p. 3-21.

³⁰⁾ 김변은 『제중입효방』의 저자 김영석의 증손이다. 그의 가계는 조선 후기 강릉지방을 중심으로 의약계(醫藥界)를 결성할 정도로 의약 전통이 강하였다고 한다.

³¹⁾ 김진희, 『고려의서 비예백요방에 관한 연구』 경희대 한의대 석사학위논문 (2011).

³²⁾ 이경록, 「고려 후기 의학지식의 계보 - 비예백요방과 삼화자향약방의 선후관계 재론」, 『동방학회지』 166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 p. 93-124.

방』을 제외하고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처방들이 후대의 의약서에 인용되어 있어 최근 이를 이용하여 일부 복원이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고려시대 의약서에 기술된 처방 중 인삼에 관한 처방은 당시 일반 백성들이 인삼을 접하기가 매우 어려웠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려시대 인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려의 대표적인 생산 재이었다.

이해 상충

저자는 이해 상충이 없음을 선언함.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고려인삼학회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참고문헌

단행본

- 강화혈구연구회. 『고려시대 생활사』 (디자인센터 산, 2017).
 남도영. 『국사정설』 (동아출판사, 1964).

신서원 편집부, 『북역 고려사』 (도서출판 신서원, 1997).
 안상우, 최환수. 『어의촬요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0).

이경록. 『고려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 (혜안, 2010).

이성우. 『한국식경대전』 (향문사, 1981)

장일무. 『한국인삼산업사』 (정관장문고, 2018)

한국인삼사편찬위원회. 『한국인삼사』 (삼화인쇄주식회사, 1980)

한국인삼사편찬위원회. 『한국인삼사』 (동일문화사, 2002)

논문

김진희, 안상우. 「삼화자향약방의 복원 연구」, 『한국한의 학연구원 논문집』, 15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안상우. 「고려의서 비예백요방의 고증」, 『서지학연구』 22 (2001).

이경록. 「고려후기 의학지식의 계보-비예백요방과 삼화자 향약방의 선후관계 재론」, 『동방학회지』 166권 (연세 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

이덕호, 김홍균, 안상우. 「제중입효방에 관한 의사학적 고찰-교효산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제21 권 (한국의사학회, 2008).

Received: October 11, 2022

Revised: January 12, 2023

Accepted: January 15, 2023